

» 디지털 도어록 안전성 대폭 강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신축 아파트에서는 필수품으로 여긴 정도로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디지털도어록'의 한국산업규격(KS)이 한층 강화되었다.

지난해 11월 대구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서 고부(姑婦)가 사망한 원인으로 디지털도어록 개폐 장치의 오동작이 의심된 바 있어 비상시 쉽게 열릴 수 있는 수동개폐장치의 장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내부되었고,

또한 최근 특수한 목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전기충격기에 의해 디지털도어록이 쉽게 열릴 수 있음이 신문·방송에 보도됨에 따라 200만여 세대의 디지털도어록 사용 소비자가 불안감에 휩싸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이외간이 디지털도어록의 안전성이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생산업체 및 관련 전문가 회의를 거쳐 3만 불트의 고위위에서는 열리지 않으면서,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노약자나 어린이가 내부에서 쉽게 열고 탈출할 수 있도록 수

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는 등 KS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따라서 기술표준원은 현행 KS에 전기충격시험과 수동개폐장치의 의무화 및 이에따른 토크시험을 추가하는 KS 개정(안)을 1월 17일에 확정하였으며, 올 4월경에는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KS인증 디지털도어록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소비자의 불안감을 분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내생물산업 통계조사 결과

새로운 기술·제품이 급속히 출현하고 있는 국내 생명공학기술과 생물산업의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은 산업연구원과 한국바이오산업위원회 공동으로 조사한 2004년도 국내 생물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조사에서는 '04년도 국내 생물산업계의 투자현황, 매출 및 수출·위 현황, 인력현황, 기술현황을 비롯하여 생물산업체의 지역분포, 설립연도, 종사자 규모 등에 대하여 640여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국내 생물산업 통계조사 결과 주요내용

- '04년도 국내 생물산업 생산규모는 2조 4,199 억 원('03년 2조 791 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4%가 증가하여, '03년도 생물산업 생산규모 증가율 9.8%에 비해 상당히 높은 성장임
- '04년 국내 생물산업의 총 공급(생산 및 수입) 규모는 3조 929억 원으로 '03년의 2조 5,923 억에 비해 19.3%가 증가

- 국내생물산업은 바이오식품(44%)과 생물의약(40%)이 전체 생산규모 중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물화학(6%), 생물환경(5%), 생물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3%), 생물공정 및 기기(2%) 순서임
 - '04년 바이오식품의 비중 [45%('03년)→44%('03년)]과, 생물의약의 비중 [41%('03년)→40%('04년)]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
- '04년 생물산업 부문 종사인력은 총 12,138명으로, '03년 10,540명 대비 15.2% 증가하였으며, 이는 '03년 증가율 21.1%에 비해 다소 둔화된 것으로 조사됨
 - '04년 생물산업 종사인력 중 연구직 인력은 총 6,608명, 생산직 인력은 총 4,732명으로 '03년 대비 각각 13.8%, 16.9% 증가
 - 생물산업 부문 종사인력의 학위분포는 연구직의 경우 박사:석사:학사 비율이 1:2.7:2.6, 생산직의 경우 1:9.3:33.5를 차지하여 일반 주력산업과는 매우 차별화된 고학력 위주의 인력 구조
- 국내 생물산업 기업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경기(33%), 서울(23%), 대전(10%) 순으로,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됨
 - '03년도 기준, 경기(31%), 서울(23%), 대전(10%)과 유사한 생물산업체 지역분포임

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매년 국내생물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정부의 생물산업 육성 및 표준화 정책수립과 R&D투자를 위한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기업이 주력업종 선정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용한 자료

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006년 국가환경경영대상 정부포상계획

우리부와 환경부는 기업의 환경경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우수 환경경영을 수행한 유공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2006 국가환경경영대상』 정부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경영은 국제환경규제 및 무역장벽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으며, 이를 활성화하여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 포상의 특징이다.

포상대상은 환경경영, 청정생산, 에너지혁신, 환경서비스 및 온실가스저감 등에 현저히 공헌한 기업체 및 우수 환경경영을 수행한 기업체의 대표·임원 및 유공자이다.

또한,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과정에서 환경친화성이 고려된 제품과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한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에도 포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기존의 환경경영관련 정부포상은 『국가친환경경영대상』('04~'05)과 『환경경영대상』('99~'05)을 우리부와 환경부가 부처별로 각각 시행하여 왔으나, 유사포상의 중복시행으로 산업계의 혼란을 초래하는 등 그 의미가 퇴색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두부처가 『국가환경경영대상』으로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환

경쟁영역을 대표하는 정부포상이 되었으며,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함으로써 환경경영 확산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포상규모는 기업체부문, 단체부문, 제품부문에 대통령상(2개), 국무총리상(2개) 및 장관상(14개)과 유공자 부문에 훈·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포창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기업, 단체, 제품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6월 초 개최되는 『2006년 환경경영축진대회』에서 수여될 예정이며, 우수사례 발표 및 환경경영관련 세미나 등 대대적인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된다.

신청접수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 까지 매경안전환경연구원에서 접수를 받으며, 신청서류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표준위 (<http://www.ats.go.kr>), 환경부 (<http://www.me.go.kr>) 또는 매경안전환경연구원(<http://www.mkshc.co.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2월 1일부터 다운받을 수 있다.

» 신제품(NEP)인증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 기술표준위는 '06. 2월부터 한달간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전국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 인증제도 운영과 지원제도 진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 신제품 인증제도는 NT, EM, KT 등 지닌해까

지 정부 5개부처에서 운영하던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를 통합정비하여 금년 1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인증제도이다.

- 신제품 인증의 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신기술제품임.

○ 신제품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 의무구매 및 우선구매, 전시회 출품비 보조, 인증제품의 이행보증(입찰, 계약, 지급, 하자, 차액) 우대, 신용관대지원사업, 금융기관 대출 우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금년 초 제도 시행 이후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제조업체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나, 인증제도의 세부 운영내용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기업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증신청 전 준비사항, 신청방법, 인증심사 절차 및 피심사업체 처안사항, 지원제도 수혜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며, 개별 상담과 신청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